

조선대·광주여대, 전국대학배구대회 남녀 동반 우승

조선대, 인하대에 3-2 신승
광주여대, 경일대 3-0 완파
두 학교 모두 대회 첫 우승

광주지역 남·여 대학 배구팀인 조선대와 광주여대가 전국대학배구대회에서 동반 우승의 쾌거를 거뒀다. 두 팀 모두 전국 대학배구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대는 3일 경남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3회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남대부 결승전에서 인하대를 세트 스코어 3-2(21-25 25-20 25-17 23-25 19-17)로 승리하며 창단 이래 첫 전국대학배구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조선대는 예선 A조에서 인하대에 1-3으로 패배한 뒤 경희대(3-1 승)와 홍익대(3-2 승), 중부대(3-0 승)를 연파하며 3승 1패를 기록, 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2일 성균관대와의 준결승에서 3-1로 승리한 조선대는 이날 결승에서 1세트를 접전 끝에 21-25로 내줬지만 2세트(25-20 승)와 3세트(25-17 승)를 내리 따내며 우승에 한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4세트에서 23-25로 쏠 분위기가 꺾인 듯 싶었으나 마지막 5세트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19-17로 이겨 우승을 확정지었다.



조선대와 광주여대 배구 선수단이 3일 경남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3회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에서 각각 남대부와 여대부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우승은 조선대 배구부가 전국대학배구대회 역사상 처음 결승에 진출해 거둔 첫 우승으로, 꾸준히 이어온 선수단과 지도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 지도

자상을 수상한 박성필 조선대 배구감독은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절실함이 있었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며 "큰 대회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 역할을 해낸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모든 경기를 팀답게 마무리해 준 덕분에 우승이라는 결과가 따라

왔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선대는 이번 우승과 함께 개인상도 휩쓸었다.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과 날카로운 공격력을 선보인 송수환(2년)이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했다.

윤건우(1년)는 리베로상을, 박인우

(4년)가 세터상을, 심준호(2년)가 블로킹상을 각각 받았다.

광주여대는 같은날 열린 대회 여대부 결승에서 경일대를 3-0(25-23 26-24 32-30)으로 완파하고 창단 첫 전국대학배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여대는 예선 B조에서 동의대(3-0 승), 단국대(3-0 승), 경일대(2-3 패)를 상대로 2승 1패를 거둬 조 2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서 목포과학대에 3-2 집합승을 거둔 광주여대는 결승서 다시 만난 경일대를 상대로 설욕전에 성공하며 창단 이후 처음으로 이 대회 우승컵에 입맞춤했다.

여대부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은 최성우 광주여대 배구감독은 "실업팀에 가지 못한 선수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훈련을 많이 했다. 특히 수비 조직력에 중점을 뒀는데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며 "정말 힘들게 준비한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힘든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라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광주여대도 개인상을 독식했다. 김나현(3년)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세터상에 손은진(3년)이, 리베로상에 박유리(3년)가, 블로킹상에 김연화(2년)가 각각 선정됐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FC, 울산 제압하고 2년 연속 코리아컵 4강 진출

후반 29분 조성권 헤더 결승골

광주FC가 수직 강세를 바탕으로 맹공을 펼친 결과 2년 연속 코리아컵 4강 진출 쾌거를 달성했다.

광주는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 울산 HD FC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광주는 지난해 첫 코리아컵 4강 진출에 이어 2년 연속 4강 진출을 달성했다.

광주는 이날 경기에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헤이스와 아사니가 투톱을 형성했고 정지훈, 주세종, 최경록, 가브리엘이 미드필더로 나섰다. 김한길, 민상기, 변준수, 조성권이 수비를 맡았고 부상에서 복귀한 김경민이 골문을 지켰다.

경기 초반부터 광주가 압박을 거세게 시작했다.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울산 공격 흐름을 끊었고 주도권을 바탕으로 하는 광주만의 축구를 시작했다. 전반 14분 수비 압박을 이겨내고 아사니에게 패스를 전달했고 아사니의 강한 슈팅

으로 이어졌지만 아쉽게 수비에 막혔다.

그러나 전반 43분 울산 수비수 김영권이 아사니에게 백패스를 시도해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았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되면서 광주는 수직 우위를 점한 채 후반전에 돌입했다.

울산은 원백 강상우를 빼고 센터백 이재익을 투입하며 수비벽을 강화했고 광주는 울산을 일방적으로 골문을 두드렸다.

후반 12분 헤이스가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했으나 조현우의 정면으로 향했고 후반 23분 박인혁이 골문 근처에서 득점 기회를 얻었으나 아쉽게 반대편 골대로 빗나갔다.

계속 골문을 두드리자 결국 열렸다. 교체 투입된 신창무가 후반 29분 골대 왼쪽에서 코너킥을 올렸고 수비수 조성권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터뜨렸다.

무실점 전략이 틀어진 울산은 급하게 보이니치와 트로야크 이진현을 내리고 정우영, 라카바, 이청용을 투입했으나 광주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비하며 승리를 굳혔다.

민현기 기자



광주FC 헤이스가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 울산HD FC와의 홈 경기에 출전해 드리블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뒷문, KIA 반등의 원동력

전상현·조상우·최지민 '필승조 부활'
6월 제뿔 득점·승부처매 해결사로
월간 MVP후보 등 최근 성적 괄목
역전패 악몽 딛고 선두권 도약 발판



한때 경기 후반마다 '역전패'의 악몽에 시달렸던 KIA 타이거즈가 6월 이후 철벽 불펜진을 바탕으로 확실한 반등에 성공했다. 전상현, 조상우, 최지민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시즌 초반 부진을 털고 본래의 기량을 되찾으면서 팀의 뒷문이 안정됐고, 이는 리그 상위권 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KIA는 올 시즌 초반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며 무거운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특히 불펜 부진은 치명적이었다. 5월 초까지 기록된 패배 중 절반 이상이 역전패로 이어졌고, 경기를 앞서가다가도 후반에 뒤집히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팀 전체의 사기도 크게 흔들렸다. 실제로 KIA 불펜의 5월까지 평균자책점은 5.59로 리그 9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6월 들어 KIA의 불펜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균자책점을 3.10까지 끌어 내리며 리그 2위로 수직 상승한 것이다. 같은 시기 KIA는 역전승 비율을 높이고, 역전패는 급감했다. 경기 후반 리드를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타선 부담도 눈에 띄게 줄었다. '선취점=승리' 공식을 다시 구축하게 된 것이다.

반등의 중심에는 불펜 3인방이 있다. 먼저 전상현은 6월 한 달간 15경기에서 17.1이닝을 소화하며 9홀드, 평균자책점 2.08의 눈부신 성적을 냈다. 이 기간 그는 리그 최다 등판 투수로, 연투에도 흔들림



KIA타이거즈 최지민이 지난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 하고 있다.

없는 피장을 선보였다. 지난달 28일 LG 전에서는 개인 통산 100홀드를 달성하며 구단 최초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활약에 힘입어 전상현은 KBO 6월 MVP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상우 역시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시즌 초반 '트레이드 실패'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6월 들어 11경기 11이닝 평균자책점 0.82, 8홀드라는 완벽에 가까운 기록으로 체면을 회복했다. 시즌 누적 22홀드로 리그 최다 홀드를 기록 중이며, 6월에 따낸 8홀드 중 7경기에서 팀이 승리한 것은 그의 존재감을 명확히 보여준다.

좌완 필승조 최지민의 회복은 더욱 극적이다. 지난해 58경기에서 6승3패 3세이브 12홀드 평균자책 2.12를 기록하며 리그 최정상급 좌완 계투로 성장한 그는, 올해 초반 극심한 제구 난조에 시달렸다. 5월까지 평균자책 7.71, 볼넷 21개라는 수치는 '재앙' 그 자체였다. 팀 내 다른 좌완 불펜 좌도규(시즌 아웃), 이준영(팔꿈치 염증)마저

빠지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결국 2군행이라는 뼈아픈 결단을 거친 그는, 6월 들어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어 돌아왔다. 팔 스윙과 릴리스포인트를 재조정하는 그는, 12경기 11이닝에서 11탈삼진 8사사구, 평균자책점 2점대의 투구를 선보이며 '좌완 왕국'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최지민은 "5월에는 심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무너졌었다"며 "볼넷을 안타하나 맞은 거라 생각하고 자신 있게 던지자는 멘탈 트레이닝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잘 던져야 전상현 형, 조상우 형, 해영이 형이 덜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책임감을 드러냈다.

이범호감독도 "지민이가 스트라이크를 안정적으로 넣고 있어 확실히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은 것 같다"며 "(이)준영이가 복귀할 때까지는 좌완 필승조로 꾸준히 중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펜이 탄탄해지면서, KIA는 본격적인 상위권 경쟁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불펜 운영에 대한 불안 때문에 조심스러운 운용을 했지만, 지금은 상대 타선의 핵심 구간에 맞춰 필승조를 적극 기용할 수 있게 됐다. 타선의 득점력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 점 차 리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은 감독의 전략 운용에도 유리한 조건이다.

KIA는 이번 시즌을 두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지키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경험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불펜의 '유지력'이다. 특히 전상현과 조상우처럼 등판 수가 많은 선수들의 피로 관리, 최지민의 회복세 유지가 관건이다.

'믿고 던질 수 있는 뒷문'은 강팀의 조건이다. KIA는 그 조건을 비로소 갖춰가고 있다.

민현기 기자